

KIA '해결사' 최형우, 18시즌 연속 100경기 출장 '금자탑'

KBO 역대 최초...3번째 1천300 4사구까지 동시 달성
삼성 입단부터 KIA 중심타자까지 18년간 꾸준함 입증
2천300경기·4천400루타·2천600안타 등 기록 진행도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해결사' 최형우가 KBO 역사에 길이 남을 두 개의 대기록을 동시에 써냈다. 최형우는 지난 12일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삼성과의 원정경기에서 KBO 최초 18시즌 연속 100경기 출장과 역대 3번째 1천300 4사구를 동시에 달성했다.

전날까지 올 시즌 99경기에 출전한 그는 이날 1회초 4번 지명타자로 타석에 들어서며 100경기 출장 고지에 올랐다. 이로써 2008년부터 이어온 18시즌 연속 100경기 출장 기록을 완성했다. 이는 KBO 역대 최초의 대기록이다.

2002년 삼성에 입단한 그는 2008년 주전 자리를 꿰찬 뒤 매해 꾸준히 100경기 이상을 소화했다. 144경기 체제가 시작된 2015년에는 전 경기에 출장해 개인 최다 홈런(33개)을 기록했고, KIA 이적 첫해인 2017년에도 142경기에 나서 팀의 통산 11번째 우승을 견인했다. 2021년에는 망막 질환을 겪으면서도 104경기에 출전했고, 이후에도 변함없는 중심타자로 팀 타선을 지탱해왔다.

지난해에는 KBO 최초 17시즌 연속 100경기 출장과 함께 팀 통산 12번째 우승을 이끌었다. 올해도 여전히 녹슬지 않은 기량으로 타이틀을 18시즌으로 경신했다.

이는 강민호(삼성·10시즌), 최정(SSG·9시즌) 등 현역 최다 출장 선수들도 이루지 못한 엄청난 업적이다. 철저한 자기관리와 부단한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기록이다. 현재까지 최형우의 기록에 가장 근접한 이는 김현수(LG·16시즌)다.

대기록 달성 소감에 대해 최형우는 "하루하루 하다 보니 여기까지 온 것 같다. 특별한 기록이라 생각하지 않고 평소처럼 하다 보니 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평소 하던 대로 꾸준함을 유지한다면 이 기록은 계속 이어질 거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날 최형우는 통산 1천300 4사구 고지도 밟았다. 종전 1천299개를 기록 중이던 그는 2회 몸에 맞는 볼로 출루하며 대기록에 도달했다. 이 수치는 그가 상대 배터리에게 얼마나 버거운 존재인지를 잘 보여준다. 4사구는 볼넷과 사구를 합친 것으로, 그는 양준혁(전 삼성·1천380개)과 최정(1천432개)에 이어 역대 3번째로 1천300개를 돌파했다. 이어 4회와 9회에도 볼넷을 골라내며 통산 1천302개로 늘렸다.

이미 KBO 레전드 반열에 오른 최형우 앞에는 또 다른 새로운 이정표들이 기다리고 있다.

▲2천300경기 출장(역대 3번째, 19경기 남음) ▲1천400루타(최초, 30루타 남음) ▲2천600안타(최초, 45안타 남음) ▲5502루타(최초, 11개 남음) ▲1천200 4구(역대 2번째, 17개 남음) 등 굵직한 기록들이 목전까지 다가왔다.

기록 달성은 시간 문제다. 올 시즌 전반기에 버금가는 활약을 펼치며, 리그 최상위권의 공격력을 과시하고 있어서다. 팀 내 최다인 100경기에 출장해 타율 0.316(리그 5위), OPS 0.946(3위), 출루율 0.410(3위) 등 공격 전 부문에서 상위권을 달리고 있다.

현역 선수 중 이렇게 다양한 부문에서 대기록을 동시에 추격하는 타자는 드물다. 그의 꾸준함과 집중력은 또 한 번 KBO 역사에 상징적인 장면을 새길 것이다. /주홍철 기자



최형우 (KIA 타이거즈 제공)

“손흥민 리더십, 정치인들 배워야...”

이병훈 前 의원, 유튜브 채널서 손흥민 극찬

이병훈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인 유튜브 채널에 손흥민의 리더십을 극찬한 영상을 게시해 눈길을 끌었다.

손흥민 선수의 열렬 팬인 이 전 의원은 13일 개인 유튜브 채널 '이병훈TV'에서 "손흥민 광팬 이병훈! LA FC 유니폼 어렵게 get~"이라는 제목의 숏츠(shorts)를 올렸다. <사진>

손흥민은 지난 6월 10년간 몸담은 토트넘 홋스퍼 FC를 떠나 로스앤젤레스 FC로 이적해 지난 10일(한국시간) 데뷔전을 치렀다. 메이저리그 사커 34라운드 시카고 파이어 FC와의 경기에서 후반 16분 교체투입된 손흥민은 팀이 1-2로 뒤진 상황에서 페널티킥을 만들어내 득점에 기여했다.

이 과정에서 손흥민은 페널티킥을 팀 동료 드니 부안가(30)에게 양보했고, 이 광경을 지켜본 팬들에게 큰 갈채를 받았다.

이 전 의원은 "보통 선수는 본인이 잘 것을 동료에게 양보했고, 그것이 손흥민의 리더십이자 팀에 대한 배려"라며 "정치인과 사회 지도층들이 손흥민의 리더십을 배워야 나라가 행복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FC 7번이 달린 손흥민 유니폼까지 착용한 이 전 의원은 "어떻게 유니폼을 구했는지, 손흥민과 동시대에 태어나 활약상을 본 것은 대단한 행운이다"면서 "대한민국 대표팀과 손흥민의 승승장구를 기원한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한편, 이 전 의원은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에 임명됐다. /박희중 기자

한국, 19세 이하 세계남자핸드볼대회 첫 승

한국 19세 이하 남자 핸드볼 대표팀이 세계선수권대회 첫 승리를 따냈다.

한국은 12일(현지시간)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국제핸드볼연맹(IHF) 제11회 세계남자청소년(19세 이하) 선수권대회 6일째 프레지던트컵 4조 미국과 경기에서 31-25로 이

겼다.

조별리그에서 3전 전패를 당해 32개 참가국 중 17-32위권에 해당하는 프레지던트컵으로 밀려난 한국은 조 3위를 차지, 25-28위전에 나가게 됐다.

최형우(선산고)와 김은호(경희대)가 나란히 7골씩 넣어 이번 대회 첫 승리에 앞장섰다.

우리나라는 14일 알제리와 25-28위전을 치른다. /연합뉴스

‘팔꿈치 통증’ KIA 윤영철, 결국 수술대 오른다

내달 일본서 인대 재건 수술...시즌 마감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좌완 윤영철(21)이 결국 수술대에 오른다.

KIA 구단은 13일 "윤영철이 다음달 4일 일본 요코하마 미나미 공제병원에서 좌측 팔꿈치 내측측부인대 재건술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영철은 지난달 8일 한화전 등판 뒤 팔꿈치 통증을 호소했고, 검사 결과 팔꿈치 굴곡근 부분 손상 진단을 받았다. 최근 재검진에서 수술 필요 판정을 받으면서 수술 일정을 확정했다.

2023시즌부터 KIA 선발진의 한 축을 맡아온 그는 올 시즌 13경기에서 2승 7패, 평균자책점 5.58을 기록했다.

4월 두 경기에서는 평균자책점 19.64로 부진했지만, 5월 이후 반등세를 보이기도 했다.



윤영철 (KIA 타이거즈 제공)

그러나 끝내 안정세를 되찾지 못한 채 부상으로 시즌을 접게 됐다. /주홍철 기자

‘축구 인재 육성’ 광주FC 유소년재단 공식 출범

개인 후원 중심 프로그램 운영

광주 지역 축구 인재 발굴과 유소년 육성을 위해 설립된 공익법인 '광주FC 유소년재단'이 공식 출범했다.

광주FC 유소년재단은 13일 기획재정부 승인 절차와 후원시스템 구축 등 모든 법적·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사업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재단은 지역 내 소외계층 등 유망 선수들이 안정적으로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금 지원과 다양한 육성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소년재단은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개인 후원 중심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정기·일시 후원자에게는 광주시의 5대 시정 철학과 유소년 선수들의 꿈을 형상화한 '기부 팔찌'를 증정한다.

기업 후원자에게는 구단 IP 사용권, 경기장 보드 광고권, 구단 유니폼 광고권 등 다양한 부가 혜택이 제공된다.

후원 방법은 광주FC 유소년재단 공식 홈페이지(youthgwangjufc.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동일 광주FC 유소년재단 이사장은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형 후원을 통해 광주 축구의 미래를 이끌 인재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지역 사회의 관심과 성원이 광주 축구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희중 기자